우리는 왜 염불을 해야 하는가



염불,
극락으로의 초대
선화 상인 법문
각산 정원규 · 이정희 편역
불광출판사
1만7000원

미국에 대승 처음으로 가져간
중국 선화 상인의 염불 법문
염불 목적과 의미 · 방법 망라
"염불은 극락세계 왕생 이끌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화(宣化, 1918~1995·사진) 상인은 20세기 중국을 대표하는 선사 가운데 한 명으로, 불교가 잘 알려지지 않은 서양에 법을 전한 시대의 스승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에 처음으로 대승을 가져가 눈 푸른 납자들을 탄생시키고 불교 경전을 영어와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힘을 쏟았다. 평생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염불의 목적과 방법, 공덕으로 인한 가피 등을 강조해온 선화 상인의 가르침이 〈염불, 극락으로의 초대〉 한 권에 담겼다.

염불은 접근성이 유독 낮아 수많은 불자들의 사랑을 받는 불교 수행법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명호를 반복해 부르면서 삼매에 들고,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 죽은 뒤 부처의 세계인 정토, 즉 극락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정토신앙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수행법이다. 〈관무량수경〉에서도 '염불하는 사람은 하얀 연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염불의 중요성을 전한다.

선화 상인은 평소 염불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임종 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순조롭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습관이란 조금씩 쌓아 이루는 것이기에 평소 염불하는 습관이 없는 이는 임종 시에 이르러 염불을 생각할 수 없거나 아예 염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처를 이루면, 나의 명호 '아미타불'을 염하는 시방의 모든 중생을 반드시 나의 극락세계에 맞아들여 장래에 성불케 하리라. 나의 세계에는 중생이 모두 연꽃에서 화생하여 그에 따라서 몸은 오염됨이 없이 청정할 것이니라."

아미타부처님께서 비구승으로 인지(因地, 부처를 이루기 전 지위)에서 수행하던 때에 48대원을 발원한 내용 중 하나다. 아미타부처님이 이렇게 큰 원을 발했기 때문에 일체중생은 모두 염불 법문을 닦아야 하고, 이는 중생의 근기에 맞는 수행하기 쉬운 하나의 법문이라는 게 선화 상인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염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화 상인은 △입으로 마음으로 염불하면서 행주좌와에 모두 아미타불을 염할 것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염할 때 마음과 입이 참되고 정성스럽게 △망상과 잡념이 없도록 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서 염불의 네 가지 방법을 설한다.

첫째는 지명염불(持名念佛).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칭념하는 것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고 염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상염불(觀想念佛)로, 관상이란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관상염불(觀相念佛)이다. 아미타부처님의 상을 대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을 뜻한다. 한 번 염불할 때마다 입으로 분명히 염송하고, 귀로는 분명히 듣고,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실상염불(實相念佛)이다. 자성법신의 참된 부처님을 염하는 것으로 곧 참선을 뜻한다.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궁구하고, 염불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다.

연약한 존재 향한 따뜻한 감성 법문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
자현 스님 글
불광출판사
1만 6000원

성(聖)과 속(俗), 그 사이를 오가며 누구보다 뜨거운 삶을 사는 수행자가 있다. 불교계 유명 방송인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자현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특유의 입담과 재치 있는 멘트로 불교를 가장 재미있고, 유쾌하게 소개하는 스님은 항상 대중과 호흡하는 불교계의 '인플루언서'이자 '엔터테이너'이다. 스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은 '학자'이다. 지금까지 7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술 등재지에 발표한 논문만 190여 편에 이르는 참 부지런한 불교학자이다.

그런 스님의 이번 신간은 특별하다. 산사와 속세를 오가며 잠시 동안의 침묵 사이에 떠오른 말들, 짧지만 진지한 단상(斷想)을 엮은 수상록(隨想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문 · 종교 분야의 교양서와 학술 연구서를 주로 선보인 스님에게 볼 수 없던 새로운 면모이다.

이 책에 실린 100여 편의 글들엔 평소 호탕한 웃음 뒤에 숨겨진 수행자로서의 진지한 고민과 다짐이 담겨 있다.

바람과 같이 걸림 없는 완전한 해방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는 수행자의 길. 그 위에서 간혹 서럽고, 나약해지지만 수행자는 '나락이 도정되어 백미가 되듯' 자기 자신의 '두꺼운 껍질을 벗고 머트러움을 깎아'내 간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끊임없이 덜어내는 것. 그것이 출가인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약자로서의 권리보다는 현자로서의 배려가 있을 때 진정한 어른이 된다. –본문 중에서

스님은 멋들어진 힐링 대신 강직한 지혜와 용기를 준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미 '태양'과 같은 빛을 소유한 우리에게 '밤'의 어둠은 깃들 수 없다. 단지 미망에 가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면 '빛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할 일이다.

우리는 모두 '용'이다. '너무 오래 가문 탓에 승천의 뜻을 잊어 용이라는 자각마저 희미해진' 그런 용. 하지만 '우렁찬 천둥과 섬광의 벼락'같은 진리를 마주할 때 '비로소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때 우린 '영원의 행복과 평안 속으로 날개 없이 날아'갈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6년간 독자·불자들과 소통해 온 SNS에 남긴 스님의 짧은 글을 〈불광〉의 사진 80여 컷과 함께 엮은 결과이다. 감성적인 글과 사진은 독자 모두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속 깊은 용기를 선사해 줄 것이다. 법당 안에서 펼쳐지는 꼿꼿한 법문이 아닌, 길 위에 두런두런 모여 앉아 이루어지는 자현 스님의 감성 법문을 만나보자. 임은호 기자

일상단어로 풀어낸 희망과 감사의 詩 70편



세상은 모두가 희망
최유진 시
도서출판 도반
1만 2000원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보리수아래 감성시집시리즈 12번째 권인 최유진 시인의 첫 시집 〈세상은 모두가 희망〉을 출간했다.

세상 누구에게나 사는 어려움이 크든 작든 존재한다. 더욱이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기고자 노력하며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곁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향기 나는 사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최유진 시인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최유진 시인은 손가락 세 개로 컴퓨터 자판을 눌러 시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를 슬픔 아닌 긍정으로 극복해 가는 철학적 사고로 아름다운 시를 써왔다. 이렇게 써온 수많은 시편 중에 70여 편을 모아 시집 〈세상은 모두가 희망〉으로 엮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 사소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상으로 누리는 것.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
내게 오는 불행을 / 긍정으로 바꿔나가는 것.
모험을 하는 것.
나약했던 내가 / 강하게 변신해가는 것.
다른 슬픔들을 / 끌어안아 주는 것.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전문

최유진 시인은 장애를 슬픔이나 불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극복해 가는 철학을 체득했다. 나는 장애인이라하며 일상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장애인으로 사는 방법이라 했다. 이것이 나약했던 자신을 강하게 변신시키는 일이며, 인생의 모험이라는 것이다. 이 시집에 놓인 여러 시편에서, 자신을 슬픔에 맞서는 작은 거인으로 보기도 하고, 행복을 날라주는 작은 요정에 견주기도 했다.

최유진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참 수많은 역경을 거쳐야 했지만, 그것은 행복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 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시 쓰기가 나에겐 살아가는 기쁨이자, 삶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이 힘든 거지만 여기에 희망을 심어보기 위해서 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그 내면에는 행복의 해답이 있고, 시 속에는 우정과 사랑이, 자연과 자연 사랑이 많은 넝쿨로 자라고 있으며, 동심이 아기자기 숨어 있다. 그러면서 시인의 시 앞에 서서 보면 그가 시인으로 세상을 향해 열어갈 문이 환하게 열려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운명 바꾸는 주도적인 삶의 태도



조용헌의 내공
조용헌 글
생각정원
2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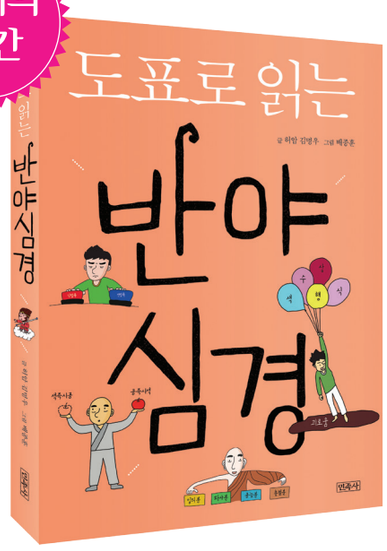
스스로를 강호동양학자로 말하는 '조용헌'이 새 책 '내공'을 내놨다.

서양의 처세술과 습관, 긍정을 강조하는 심리학, 자기계발서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조용헌이 동양적 관점의 처세와 지혜는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책 제목의 '내공'이란 동양의 정서로, 오랜 기간 수련을 통해 내면에 다져지는 힘과 기운이다. 내공에는 인내력, 집중력, 평점심 등이 포함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은 시공간, 인연이 얽혀 일어나기에 이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내공을 쌓고 다시 돌아올 파고를 넘을 수 있게 된다. 이 내공을 쌓는 법을 저자는 189가지의 압축된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씨줄 날줄로 제시한다. 신중일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